

스몰캡

정보보호 종합대책

정보보호 종합대책

10.22일 과기부와 관계부처는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후 중장기 관계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과 관련기업을 제시한다.

1. 핵심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 점검과 상시 취약점 탐지 체계 구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킹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들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 통신사의 경우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 IT 자산에 대한 식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팜토셀**(소형기지국)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할 계획이다. 보안 인증제도를 현장심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모의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 취약점과 관련하여 NAC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NAC(Network Access Control)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단말기와 사용자의 인증, 보안상태, 접근권한을 실시간으로 점검 및 제어하며, 비인가 장치와 보안 위협을 차단하는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다. 국내 관련 기업으로는 **지니언스**(263860)가 대표적이다. 국내 NAC 분야 시장 점유율 1위이며, 특히 공공 조달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팜토셀.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팜토셀이 확인되면 교체작업이 예상된다. 팜토셀(소형기지국)은 대형기지국보다 훨씬 작은 범위에서 통신 신호를 제공하는 중계장비이다. 통신세대 진화시 높은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다. 높은 주파수 대역은 도달거리가 짧기 때문에 스몰셀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KT의 팜토셀이 불법 장비에 의해 통신망에 접속, 악용되어, 일부 가입자 대상으로 무단 소액결제 등 금융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발생되었다. 이로 인해 팜토셀에 대한 안정성 확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관련기업으로는 **이노와이어리스**(073490)가 있다. 통신관련 시험장비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통신3사를 대상으로 팜토셀을 납품하고 있다.

모의해킹. 실제 공격자 관점에서 시스템·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의 취약점 점검 찾아내고, 그 취약점으로 실제 침투까지 시연해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보안점검이다. 모의해킹과 관련하여 **라운시큐어**(042510)가 대표적이다. 20여명의 화이트해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금융기관·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실제와 동일한 방식의 프리미엄 모의해킹을 진행하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종목	투자 의견	목표주가 (원)
지니언스	Not Rated (M)	- (M)
이노와이어리스	Not Rated (M)	- (M)
라운시큐어	Not Rated (M)	- (M)
아이씨티케이	Not Rated (I)	- (I)

2.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재발방지 대책 실효성 강화

기업의 보안해태(懈怠,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로 인한 해킹 발생시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한다. 해킹의 정황이 확보될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권한을 확대한다.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법적 제재 확대를 의미하며 기업들로 하여 사이버 보안을 구축 활동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3-1. 정보보호 투자확대 유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 솔루션범 위해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 인력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1Q26), 위기 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을 고도화한다. 민간의 경우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역량 수준을 등급화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CEO의 보안책임 원칙을 명문화하고, 보안최고책임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며, 자체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 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해 지원한다.

→공공과 민간에서의 사이버 보안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국내 보안 기업들은 B2G사업의 비중이 높아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되는 계절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①공공기관에서의 투자 확대는 국내 보안기업들의 전반적인 실적개선을 유발한다. ②민간에서의 사이버보안 투자 확대는 보안기업들의 4분기의 매출 집중 계절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보안 기업들의 저평가 요인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글로벌 변환에 부합하는 제도 마련 및 환경 조성

글로벌 변환에 부합하는 보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SW를 단계적으로 제한(26년~)하는 대신 다중인증, AI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의 활용을 통해 보안을 강화한다.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전환(26년~)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진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ZT. 글로벌 사이버 보안의 트렌드이며 데이터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과 관련된 사항이 ZT(Zero Trust)이다. ZT는 기업망 내·외부에 언제나 공격자가 존재할 수 있고, 명확한 인증 과정을 거치지 전까지는 모든 사용자, 기기, 네트워크 트래픽을 신뢰하지 않으며, 인증 이후에도 끊임없이 신뢰성을 검증함으로써 기업의 정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모델이다.

ZT 핵심 요소에는 **Identity, Device/Endpoint** 등이 있으며, 다중인증 기법 도입, EDR 솔루션의 전사적 도입 등이 주요사항이다. ①ID/PW를 제외한 가장 활용도가 높은 ID 확인 방법은 생체인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FIDO(Fast Identity Online)은 국제 생체인증 표준 규격으로 사용자가 생체정보(지문, 얼굴 등)나 보안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만든 글로벌 인증 표준이다. **라온시큐어**(042510)가 FIDO Alliance에서 개발했으며, 국제컨소시엄에 포함되어 있다.

②EDR(Endpoint Detection & Response)는 PC·서버·노트북 등 엔드포인트 단말에서 발생하는 이상 행위를 감지 및 탐지하고, 침입에 자동 대응하는 보안솔루션이다. NAC가 접속 단계 이전이라면 EDR은 이미 연결된 단말 내부에서의 공격 탐지 및 대응단계이다.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은 **지니언스**(263860)이다.

3-3. 보안산업을 국가전략 산업화하고 사이버안보 인력·기술 육성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기업을 집중 육성(연 30개 기업)하고 보안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보안최고 전문가인 화이트해커(연 500여명) 양성 체계를 기업 수요로 재설계하고, 정보보호특성화대학, 융합보안대학원을 5급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 인재 양성 허브로 기능을 강화(26년~)하는 등 전주기 보안인력 양성을 체계화·고도화한다.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체계 전환을 착수, 공공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 드론 등 신기술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26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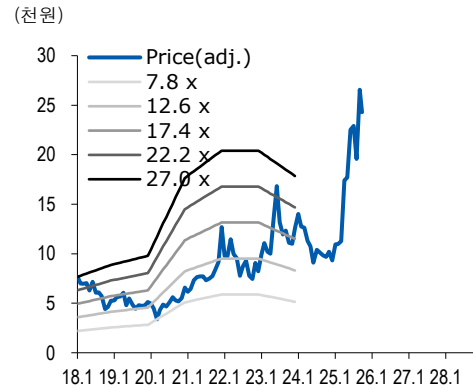
→양자내성암호(PQC, Post-Quantum Cryptography)는 향후 등장할 양자컴퓨터가 기존 암호체계를 쉽게 푸는 것을 대비해, 양자컴퓨터로도 깨기 어려운 수학적 문제를 기반으로 설계된 차세대 암호 기술이다. 국내 관련기업으로 **라온시큐어**(042510), **아이씨티케이**(456010) 등이 있다.

4. 범국가적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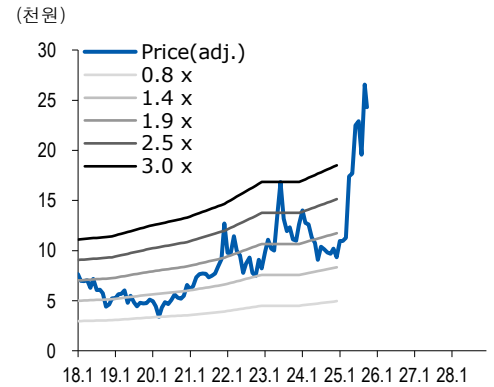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하여 현장훈련을 최소화하고, 민간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간의 사이버 위협 예상·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향후 수립될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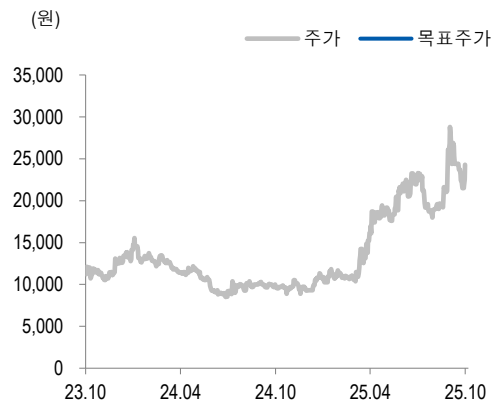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지니언스 (26386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 저) 주가 대 비
2025-10-23	Not Rated	-	1년		
2025-04-23	Not Rated	-	1년		
	담당자변경				
2025-03-28	1년 경과 이후		1년		
2024-03-28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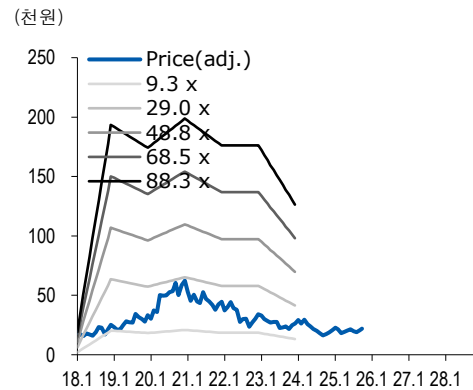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5
Hold(중립)	6.5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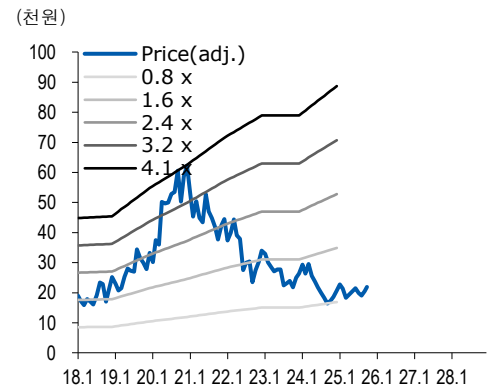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5-10-22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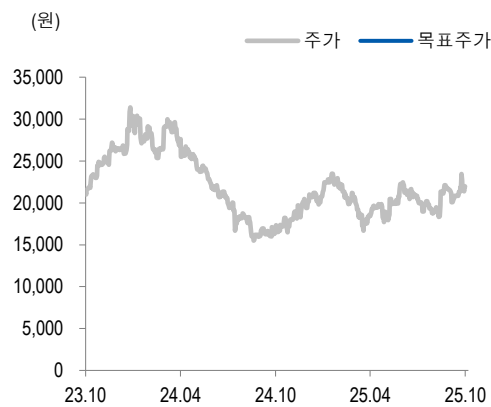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이노와이어리스 (07349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 저) 주가 대 비
2025-10-23	Not Rated	-	1년		
2025-10-14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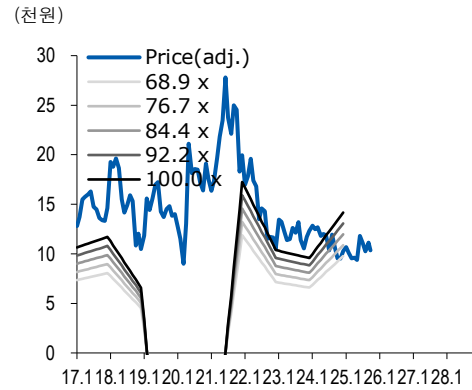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5
Hold(중립)	6.5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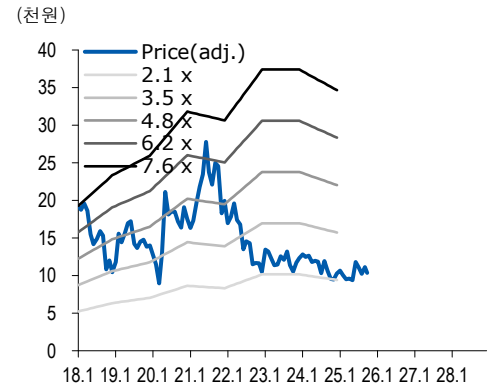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5-10-22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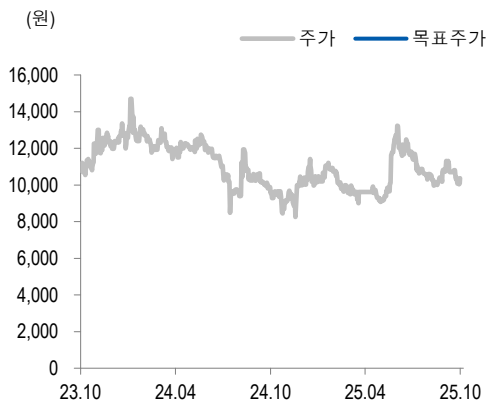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라온시큐어 (04251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5-10-23	Not Rated	-	1년		
2025-09-25	1년 경과 이후		1년		
2024-09-25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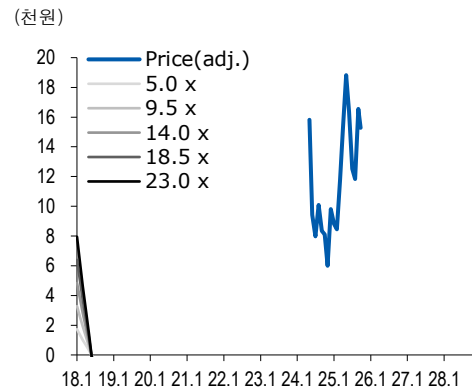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5
Hold(중립)	6.5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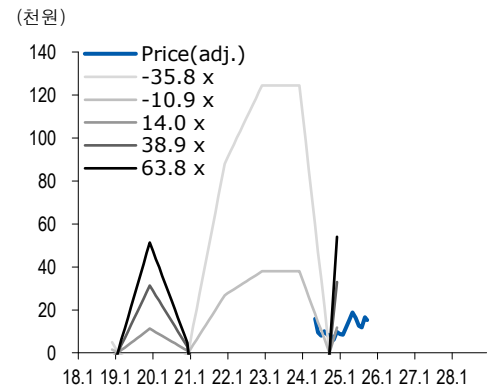
주: 기준일 2025-10-22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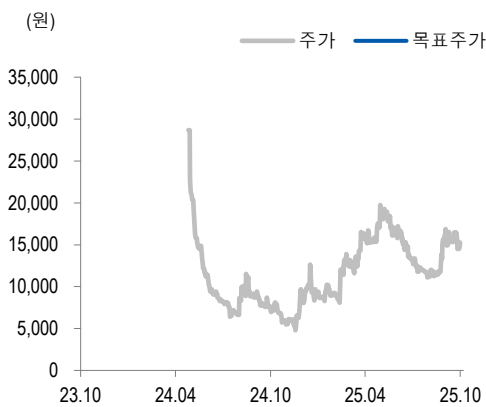
P/E band chart



P/B band chart



아이씨타케이 (45601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 저) 주가 대 비
2025-10-23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3.5
Hold(중립)	6.5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5-10-22

※해의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